



제주도립무용단 30주년 기념 공연 '명불허전'

산지천갤러리 전시 '생명 속의 안식처'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제주빌레앙상블의 월드뮤직콘서트 '바람의 섬'

한가위 연휴 랜선 타고 제주섬 예술 여행

‘제주인놀다’ 온라인 링크 5개 도입예술단 콘텐츠 등 공연·전시 영상 80여 건 시공간 제약없이 관람을

추석 연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립제주박물관을 포함 제주지역 공공 시설이 휴관 중이기 때문이다.

그때도 추석은 추석이다. 기나긴 연휴 동안 랜선을 타고 제주 문화 예술인들의 공연·전시가 무료로 안방까지 전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문화예술제

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놀다(www.jejunolda.com)’에 접속하면 시공간 제약없이 풍성하게 차려진 문화 예술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추석을 맞아 제주에서 그동안 무관중 등으로 펼쳐진 여러 문화예술 행사 목록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온라인 링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연 76건, 전시 7건 등 83건에 이른다. 제때 챙기지 못한 공연이 있다면 ‘제주인놀다’를 방문하면 좋겠다.

먼저, 지난 7월 5개 제주도립예술단 합동공연으로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 올렸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 두 편을 감상할 수 있다. 서귀포관악단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서귀포합창단은

2019년 정기연주회 실황을 올려놨다. 도립무용단은 지난 7월 25일 진행된 장단 30주년 기념 공연 ‘명불허전’을 온라인으로 실어놓았다. 전·현직 안무자와 무용단원들이 출연해 무용단이 걸어온 30년을 몸짓 언어로 풀어낸 무대다.

지난 8월 제주아트센터에서 초청 공연한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도 동영상 채널로 볼 수 있다. 정한용, 이화영 등 실력과 배우들이 ‘옥쟁이 할머니와 날라리 할배의 로맨스’를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그려낸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교과서 속에서 만나는 성악이야기’, ‘우리 소리 & 우리 가곡’ 등을 준비했다. 제주도 성악협회, 소프라노 현성경과 바리톤 김승철, 투럼브러더스 박순동과 첼리

스트 문지윤, 소리꾼 양지은 등 출연진이 탄탄하다.

도내 음악 단체와 극단들의 공연도 공개된다. 제주오페라연구소의 ‘라보엠’, 제주빌레앙상블의 이미지 음악극 ‘스페이스 크루즈’, 월드뮤직콘서트 ‘바람의 섬’, 오페라앙상블의 ‘타악기와 썸타다’ 등이다. 2020년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대표로 선정된 극단 가람의 ‘올어라 바다야’도 동영상으로 관람 가능하다.

전시장도 온라인에선 문을 열었다. 형식과 내용을 확 바꾼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의 제26회 제주청년작가전이 대표적이다.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의 기획·상설전시도 작가 인터뷰 등을 포함한 영상으로 구성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김남홍의 '#003'

제주에 감도는 천변만화 빛의 향연

포도갤러리 김남홍 개인전 '건널 제, 고을 주' 주제 전시

제주다움에 대한 질문을 품은 화폭이 전시장에 펼쳐지고 있다. 포도갤러리에서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김남홍 작가의 '건널 제(濟), 고을 주(州)' 전이다.

2016년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전에서 김남홍 작가는 타자에 의해 바다 건너야 다다른 섬으로 명명된 제주의 풍경에 또 한번 주목했다. 오래도록 제주 풍경을 그려오면서 외면의 그것이 내면으로 확장되어 왔을 터, 작가는 토박이 제주인의 눈에 들어오는 예민한 대지의 얼굴을 유화로 담아냈다.

그의 작품에서 화면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건 하늘이다. 시멘트 바른 돌집의 슬레이트 지붕이나 길게 줄을 이은 검은 빛돌담 위로 제주 하늘이 말을 걸어온다.

그 하늘엔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 같은 먹구름이 피어나고 말간 빛으로 저물어가는 태양이 보인다. 하루에도 수십 번 표정을 달리하는 이 땅의 하늘은 천변만화하는 섬 사람들의 삶을 담았다. 화산섬 풍토에서 때때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머지않아 해맑은 날이 올 것을 알기에 그 시절을 견뎠다.

출품작은 20여 점에 이른다. 전시는 11월 18일까지 계속된다. 김남홍 작가는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현재 돌하르방미술관 관장으로 있다. 전선희기자

점점이 짙은 붓질 제주 오름 되다

윤슬비 '내 오래된 수첩'전 내달 7일부터 심헌갤러리

청년작가의 눈에 비친 제주 오름은 어떤 모습일까. 제주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윤슬비 작가의 개인전 '내 오래된 수첩'에서 그 표정을 읽을 수 있다.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심헌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에서 윤슬비 작가는 제주 오름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자유롭게 풀어낸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오름의 부드러운 곡선, 그곳에 자라는 나무와 풀의 조화를 담아냈다.

작가는 대상을 작게 쪼개 무수한 작은 단위의 집합으로 화폭 위에 오름을 빚었다. 붓으로 점처럼 찍기도 하고 살짝 선을 그어 방향성을 주는 등 유화 특유의 질감을 이용해 하나의 큰 덩어리 같은 오름 형상을 그려냈다. 수첩에 쓰기 시작한 작은 글씨



윤슬비의 '페이지 no.01-다랑쉬오름'

가 한 페이지, 한 권으로 확장되듯 점과 선이라는 미시적인 형태들이 오름이라는 거시적인 의미로 커지는 과정이 들어있다.

심헌갤러리는 윤 작가의 작업에 대해 "타 지역 출신인 작가가 바라본 제주의 자연에는 부드러움과 날카로움, 따뜻함과 차가움과 같은 상반된 느낌들이 교차한다"며 "그러한 감정들이 뒤섞인 형태를 작은 터치들이 모인 덩어리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코로나 시대여도 문학·미술 가깝게

온라인 중심 5회 문학주간 제주 아트투어 등 미술주간

추석 연휴 문학주간, 미술주간을 랜선으로 즐겨보자. 5회째인 문학주간이 지난 26일 시작돼 11월 3일까지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한 미술주간은 지난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문학주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7개 문학단체가 공

동 주관해 '문학은 더 가깝게'를 주제로 치러지고 있다. 작가 무대(스테이지), 한국문학 퀴즈쇼-가나다 시장(마켓), 제1회 과유불급 140자 시문학대전, 무장에 수어 책 콘서트 등이 예정됐다. 이달 30일엔 서귀포열시열별시낭독회(시할짝까스트방송)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학주간 블로그(blog.naver.com/arkomunha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술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국·사립

전시기관 300여 곳과 함께 꾸민다. "당신의 삶이 예술"이라는 주제 아래 가상현실로 제작한 미술 전시, 작가 미술장터, 미술여행, 미술주간 연계 체험 프로그램 등이 온·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잇따른다.

제주에서도 조천읍 신흥로에 있는 김택화미술관 등이 연계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김택화미술관은 미술관에서 듣는 미술 이야기(10월 3일), 미술여행(10월 10일)을 계획 중이다. 서귀포에서는 미술관 등을 돌아보는 아트워킹투어, 아트버스터어가 펼쳐진다. 미술주간 공식 누리집(artweek.kr) 참고. 전선희기자

집콕 가을밤 문화재 즐기기

문화재청이 추석 연휴 비대면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10월 1-2일 오후 7시 30분에는 '집콕하며 즐기는 가을밤 달빛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고궁음악회가 열린다. 이희문 등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악공연을 만날 수 있다. 10월 3-4일 오후 7시부터 '덕수궁 풍류'의 특별 무대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바리톤 양준모, 정가 하운주, 소리꾼 정운형이 출연한다. 문화유산채널 유튜브 등에서 관람 가능하다. 전선희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0709-증-110064호

3.0T MRI

- MRI(자기공명영상)**
뇌졸중 및 각종 뇌질환 진단
뇌졸중 및 뇌경색의 진단 및 뇌종양, 뇌퇴행성질환진단, 뇌혈관검사가 가능하며 동맥경화에 의한 뇌혈관 협착 및 뇌동맥류 등 혈관질환 진단도 가능합니다.
진단 : 뇌종양, 뇌경색, 혈관폐색, 혈관 협착 및 뇌동맥류, 뇌졸중진단
- MRA(자기공명 혈관영상기법)**
혈관 영상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입체영상을 획득하여 뇌혈관질환을 진단합니다.
- 간MRE**
만성 간질환(의심)자를 대상으로 간경화를 진단 및 평가하는 자기공명영상에 기반한 비침습적인 검사입니다.

뇌경색
뇌혈관폐색 등으로 인해 뇌의 일부가 괴사

뇌출혈
뇌혈관 동맥류 혹은 중양 등으로 인한 뇌혈관 파열

복부장기 MRI

MEDI 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원(제주)
예약 및 결과문의 (064)740-0200